

知的所有權 國際協約 보완

施行 · 紛爭처리 各國 實情맞게

知的所有權에 관한 협상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자간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特許廳이 이에 대한 시행문제 및 분쟁 처리 절차등에 異見을 보이고 있다.

特許廳에 따르면 開途國이 중심이 된 WIPO의 知的所有權 法 통일화 작업에 반발해 美國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GATT에서 추진되고 있는 知的所有權 신규 체계정에 特許廳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하나 몇몇 분야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항목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규정 제정은 각국의 법제 관행 등이 각각 다르므로 어려우며 해당국 국내법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히는 한편 현행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침해시 적절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GATT의 분쟁 해결 방식은 원칙적으로 수용되 知的所有權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하며 知所權 침해에 대한 GATT 권고 불이행시에도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GATT의 知的所有權 기본 원칙 및 特許 대상 및 범위 등에 한해서는 전반적으로 지

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IPO도 特許법 통일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선후진국간 이견을 보여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국제무역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知的所有權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규정 작업을 GATT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商標 도용

年末까지 合同 단속

검찰은 7월 21일 외국의 유명 商標를 위조하거나 상품을 복제해 시중에 파는 知的所有權 침해 범죄가 성행, 국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이날부터 연말까지 상공부, 문공부, 시·도와 합동으로 知的所有權 침해 사범 특별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단속 기간 중 偽造 商標나 상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거나 음반·비디오 테이프·서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무단 복제 판매하는 사람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형사 처벌 외에 허가 취소, 세금 추징 등의 행정 처분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특히 과거에 偽造 商標나 상품을 만든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 활동을 펴 우범자들의 계보를 파악하고, 이들 사범의 뿌

리가 되는 제조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하며, 국제 범죄 조직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올들어 6월 말까지 적발된 知的所有權 침해 사범은 모두 7백 59건에 9백 42명으로, 유형별로는 著作權 法 위반 4백 30건(4백 68명), 商標 法 및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1백 78건(38명),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9건(11명), 기타 1백 42건(1백 63명) 등이다.

特許廳 · WIPO

知所權 보호 國際會議 개최

半導體 칩 보호 등 새로운 知的所有權 보호를 위한 국제 회의가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WIPO 및 特許廳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14개국, 전문가국으로 美·日 등 선진 7개국이 참여, 尖端技術과 知的所有權 法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양자간 紛爭 소지가 없는 점을 집중 토론, 각국의 국내법 마련 및 국제 통일화 작업의 이론적 배경 및 활용 등에 도움을 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의는 컴퓨터 기술, 복제 및 통신의 신기술, 生命工學 등 크게 3대 분야로 구분돼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집적 회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및 녹음, 위성 중계 및 유선, 生命工學 등의 주제에 관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있게 된다. <♣>